

A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neighborhood. In the foreground, a large, dark brown tiled roof with a curved ridge dominates the lower half of the frame. Behind it, a green tiled roof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a mix of traditional and modern buildings is seen under a blue sky with light clouds. A white building with a balcony and a purple door are also visible. The overall scene depicts a blend of old and new architecture.

교2동 세모땅

발행일, 2021.12.

발행처,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발행인, 김은숙

제작기획, 스콘(고유선, 박연자, 박준상, 송성진, 엄은영, 정한호)

편집, 참깨

표지, 안상현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마을 산책가	08	고유선
유명 맛집, 노포(老鋪)의 실종	12	송성진
미로 같은 골목이야기	14	송성진
자동차가 연결하는 세상	20	박준상
독일 모델의 와이너리를 닮은 삼각형 마을	22	정한호
어쨌든 골목	28	엄은영
작은 골목, 그 속에서 되돌아 본 나	32	박연지





교2동 세모땅

말나눔터공원과 임영고개 사이, 울곡로와 임영로 그리고 강릉대로로 둘러싸인 삼각형 모양의 마을을 여섯 명의 시민이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풍경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 마을을 산책한 고유선, 강릉에서 나고 자라 어릴 적 풍경의 변화를 경험하는 송성진, 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가 그대로 공존하기를 바라는 박준상, 와인이 친숙한 문화를 꿈꾸는 정한호, 일상을 여행하는 엄은영,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는 박연지.

여섯 명이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떠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다른 이 도시에 사는 모두의 경험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강릉을 꿈꿉니다.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 마을 산책가

글. 고유선

나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을 산책가”이다. 요즘은 검색창에 지역 이름만 적으면 맛집부터 이색 장소, 하물며 추천 데이트 코스까지도 알려주지만, 그것보다는 아무런 정보 없이 걷는 것이 더 좋다. 갈림길이 나올 때면 나만의 길을 찾는 방법이 있다. 길 중에 가장 좁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도 이유가 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사람 냄새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깔끔한 디자인과 정형화된 건물이 아니라, 집주인의 역사와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 있는 하나뿐인 보물 같은 장소들. 그래서 나는 이런 보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강릉이란 지역을, 떠돌이 생활의 마지막 정착지로써 선택했는지도 모르겠다.



교2동 언덕길

어느 여름날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나는 한 언덕을 넘고 있었다. 지도상으로 그곳은 교2동에 속해 있는 율곡로의 언저리였다. 그곳은 마치 SF 영화 《업사이드 다운》의 한 부분과도 같았다. 영화 《업사이드 다운》은 서로 다른 중력을 가지고 있는 상부 세계와 하부세계의 행성이 태양을 따라 공전하면서, 공간은 같지만 서 있는 것조차, 시간조차 반대로 흘러가는 세계관을 가진 영화다. 교2동은 사 차선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의 세계가 다른 그런 곳이었다.

오른쪽은 서울 한남동에 있을법한 느낌의 동네였다. 족히 2m는 되어 보이는 높은 담벼락과 그 위에 2층으로 지어진 건물, 어린아이들이 축구 시합을 해도 손색이 없는 크기의 초록색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었다.

반면 왼쪽의 집들은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고 작아 보였다. 단층 혹은 2층 정도 되어 보이는 집들이 한 사람 지나갈 정도의 공간만 남기고 웅기증기 붙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비슷한 느낌의 건물은 없고, 건물에서는 사람 냄새가 강하게 풍겨왔다.



왼쪽 길



오른쪽 길



특이한 집 구조

나는 사람 냄새를 따라 좁은 골목길이 있는 왼쪽 길을 선택하였다. 건물 사이의 골목길은 양보의 미덕 없이는 지나다닐 수 없는 길이었다. 앞에 누군가 올라 걱정하며 나는 빠른 잔걸음으로 뛰어가듯이 골목길을 내려갔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얇은 빛이 골목길을 따라 비추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한 느낌이 들었다.

골목에 들어선 후 건물의 뒷면을 보았을 때, 큰길에서 봤던 장면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분명 내가 본 건물은 단층이었는데, 골목 아래쪽에 또 다른 층이 숨어 있었다. 일 층인 줄 알았던 공간이 이 층이 되는 신기한 마술이었다. 게다가 두 개의 현관문이 존재하는 재미난 구조였다. 과연 두 가지 입구 중에 어떤 문을 주로 사용할까? 아마도 큰길이 생기기 전에는 뒷문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웬지 큰길의 현관문으로 들어온 손님들은 지하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지하가 아닌 1층을 보면서 나처럼 놀랄 것 같았다.

큰길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았고, 세월이 느껴지는 돌바닥과, 살짝 까치발을 들면 안쪽이 흰히 보이는 낮은 담벼락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리고 골목길은 실타래처럼 꼬여서 방향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다. 나는 똑같은 길을 두 번 지나기도, 막다른 골목길에 접어들어 다시 돌아서 나오기도 했지만, 웬지 그게 싫지 않았다. 할머니가 옛날이야기를 조곤조곤 해주는 것처럼 이 골목이, 건물이 나에게 마을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좁은 길 때문에 겨울만 되면 연탄을 실은 리어카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단다.”

“옛날 영희가 여기에 하숙하던 철이를 그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지나갔지.”

“우물에서 마을 아낙네들이 항상 모여서 수다를 떨어서 우물가는 항상 시끌벅적했지.”

하지만 어떤 집은 마당이었을 법한 곳에 수풀이 잔뜩 자라고 있고, 벽과 창문에는 담쟁이 문양의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뾰뾰이 메꾸고 있는 폐가들도 있었고, 어느 곳은 덩그러니 문만이 남아 있는 곳도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볼 때면 마을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몇 번 더 애정스런 눈으로 바라봤다.



폐가



- | | | | |
|---|---|--------------|------------|
| 1 | 2 | 1. 주택개조 카페 | 2. 게스트 하우스 |
| 3 | 4 | 3. 일본 가정식 식당 | 4. 공방 |

그렇다고 이렇게 사라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다. 기존의 주택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차린 카페, 일본식 가정식을 파는 특색 있는 식당, 동네를 소개하는 게스트하우스, 아기자기한 공방들이 마을의 빈 공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기대되기도 했다.

마을 산책이란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종의 탐험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항상 지나가던 길의 깊은 곳까지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느새 나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언젠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여행하듯이 산책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마을이 당신에게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줄 것이다.📖



유명 맛집, 노포(老鋪)의 실종

글. 송성진

지역마다 지역민들이 찾는 유명 맛집이 있다. 교동에도 교동짬뽕과 형제장칼국수는 지역민들이 찾는 집이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엄지네 칼국수도 그런 집 중에 하나였다.

나도 20년 전만해도 종종 들르는 집이었다. 친구들과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비가 와서 우울하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날이면 나도 모르게 발길을 옮기는 가게였다. 내 위장을 달래주거나 내 영혼을 다독여주는 느낌이랄까. 먹는 내내 땀으로 범벅이 되어버리지만 먹고 가게 문을 나오면 그 상쾌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었다.

외지에 나가 있던 친구들도 꼭 먹고 가는 가게였고 다른 지역에서 유학 온 친구들을 끌고 가서 소개해 주던 가게였다. 당시에는 입소문을 통해서만 유명 맛집이 알려지고 고작 공중파 방송이나 지역 신문에서 맛집으로 소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던 시절이었다. 이런 곳에 언제부터냐 관광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아마 얼굴책(?)을 시작으로 SNS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할 무렵일 것이다.

골목 맛집이 지역민들이 아닌 관광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술 마신 다음날 쓰린 속을 부여잡고 찾아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다 발길을 끊게 되었다. 그 사이 엄지네칼국수는 없어지고 나머지 두 가게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얼큰한 국물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며 이어지던 교동짬뽕은 주인이 바뀌었고, 국물을 남기면 어김없이 구수한 육두문자를 날리던 형제칼국수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딸이 장사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여름도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강릉의 맛을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강릉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강릉 맛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쉽다.

오래된 가게에는 운영하는 사람 못지않게 찾는 사람들의 추억도 함께 남아있다. 2021년 현재 강릉의 많은 오랜 가게를 관광객이 점령했다. 충분히 좋은 일이라 여겨지지만 옛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는 지역민에게는 '노포의 실종'이 되었다. 🍲



미로 같은 골목이야기

글. 송성진

강릉에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도 잘 가보지 않은 골목이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자동차가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골목이 사라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강릉에 몇 남지 않은 골목이 바로 교2동 샘물터길 주변일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철도청 관사 자리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해방 이후에는 8사단 오뚜기 부대가 자리 잡아 연병장이 현재 도로위에 있었다. 강릉이 자랑하는 농고(현재 중앙고등학교)와 상고(현재 제일고등학교) 축구경기가 이 연병장에서 열려 투석전이 오가기도 했던 곳이다. 6.25 이후에는 민가들이 들어오고 버스터미널이 옮겨 오면서 도로가 생겨 현재의 형태를 갖춘 마을이다.

마을은 삼각형 형태로 집이 웅기종기 모인 형태로 골목과 골목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치 미로처럼 만들어져 있다. 걸어서 가는 길은 어디든 연결되어 있지만 자동차는 잘못 들어가면 오도가지 못하는 골목을 만나기도 하는 곳이다. 야트막한 산자락을 끼고 형성되다 보니 미술관 쪽은 지붕과 도로 높이가 같은 곳도 있고 강릉역 쪽은 평지처럼 마을이 보이기도 한다.

오래된 동네는 다 비슷하겠지만 교2동의 골목에 처음 발길을 한 사람들은 적잖이 놀랄 것이다. 미로처럼 얹혀 있는 골목을 만나고 이 골목에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마저 들 것이다. 또 어떤 골목은 성인 한사람이 똑바로 서서 지나갈 수 없는 골목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로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형성된 골목길들이다. 지금은 일부 소방도로가 생겨 차가 다닐 수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차량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동네였다. 그래서인지 더 정감 가는 골목들이 많다.

임영로를 따라 제일고등학교를 지나 행복한 모루로 가다보면 이 명고개 못가서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주점이 있다. 이 주점과 옆 건물사이에는 도로에서 보기에는 골목이 있을까 싶은 곳에 좁디좁은 계단이 있다. 강릉사람들이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한낮에도 햇볕 한줄이 들어오지 않는 계단 골목이다. 이 계단에 들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마치 우주 속에 혼자 있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킨다. 폐소 공포증이 있다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계단을 내려오면 샘물터길을 만나게 된다. 예전에 우물과 빨래터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골목에는 '오래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생긴다 골목을 따라 한 방향으로 계속가면 원래 있던 자리로 오게 된다. 공포영화에서처럼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방향을 틀어 가도 계속 골목으로 이어진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보니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잃기도 한다. 휴대폰 GPS도 가끔씩 방향을 못 찾는 경우가 있다.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골목에는 정감이 있어 좋다.

벽에 붙어있는 문구들과 집 앞에 놓여있는 꽃들과 건다보면 만나는 오래됨의 넉넉함이 있다. 길을 잃어야 보이는 풍경들일 것이다. 시간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감성일 것이다. 최근에는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식당들이 소담스럽게 풍경을 해치지 않고 자리 잡고 있어 오감을 만족시킬 수도 있다. 길을 잃었다고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길을 가르쳐줄 인심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목이니까.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교회

종교적 공간이 걷는 자의 감각에 영향을 미친다. 골목 사이에 위치한 건물이 앞으로 향하던 움직임을 제어하고 어떠한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건축물은 특정한 방식으로 도시경관을 바꾼다. 종교 정체성이나 권력을 드러내는 이상의 것. '힘이 있는 건물'은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험을 훈련시킨다.

글. 박준상



자동차가 연결하는 세상

글. 박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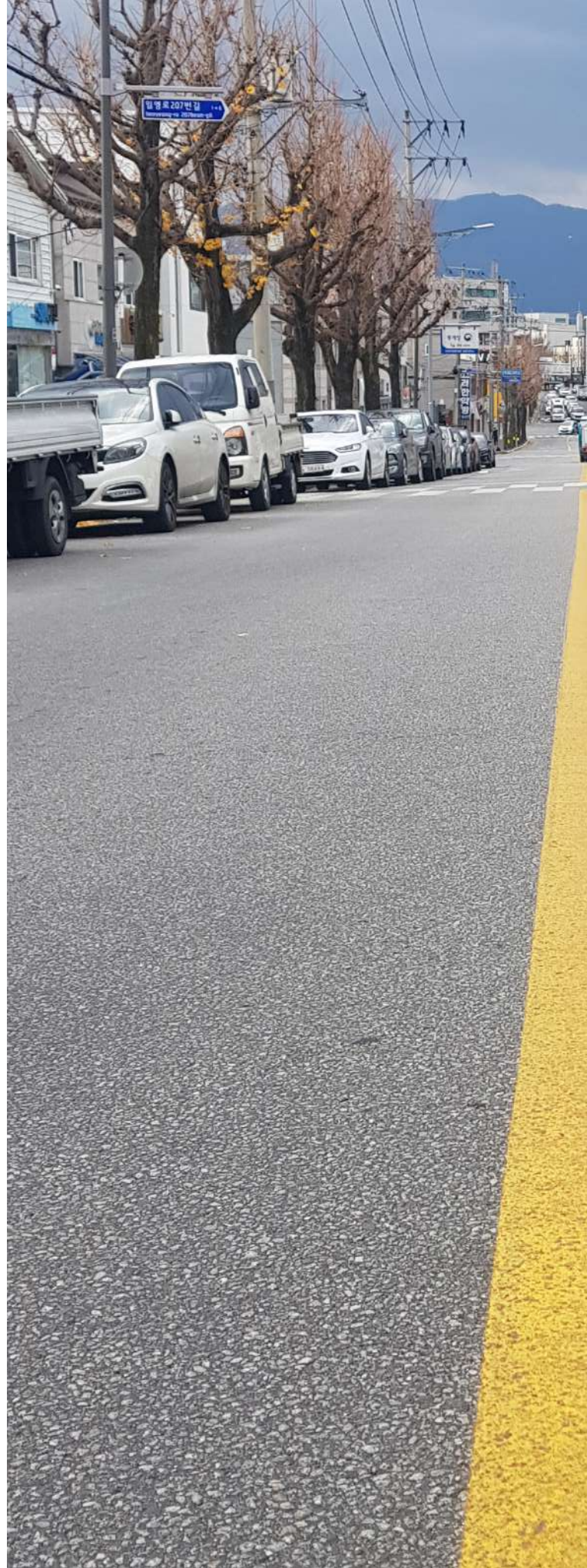
자동차 없는 도시를 상상하기 힘들다. 지난 1세기 동안 늘어난 자동차는 속도와 편안함을 넘어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삶을 파고들었다. 제조 산업 안에서의 자동차, 개인 소비재로서 갖는 자동차의 지위, 정유 및 도로 건설 등 도시 설계와의 연결, 지배 문화 안에서 자동차의 역할, 환경 자원에 주는 영향 등이 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보면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구별짓기'와 대면하게 된다. 현대적인 사람은 자동차를 탄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이동 경로에 자유를 얻고 속도를 조절하는 미덕을 갖게 된다. 공공영역 안에서 독립된 공간을 가지며 개인적 경험을 극대화 한다.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느냐는 직업, 지위, 계급, 성, 여가를 동반한 사회적 의미가 되었다. 특정 차를 타고 다니자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TV광고는 곧 판매량 상승을 불러왔고 아빠들의 로망이라는 차는 '가족을 위한 아빠'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최근 친환경적이고 비싼 차는 차주가 환경에 관심이 많고 최신 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없는 '새로운 지식인'이라는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동차가 연결하는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차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이 있다. 피해 다른 길을 살펴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금이라도 넓은 길을 발견했지만 한쪽에 비치는 주차 풍경에서 동네에 차가 많지 않음을 직감한다. 좁은 길로 이어진 집에서 자동차는 버거운 자산이거나 자동차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정주해 있음을 예상해본다.

사회 흐름에서 벗어나 서두르지 않을 자유를 키우거나 도시 풍경을 음미하는 여유로운 산책자도 있다. 하지만 지난 1세기 동안 그렇게 맞추어 왔듯이 대중차량이나 자차 등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건 이동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한다. 동네를 벗어나기 힘든 제약은 교육, 일자리, 여가 기회 등에서 경험 차이를 만든다.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 능력이 되었다.





골목은 진득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잘 달궈진 오븐에서 음식 재료가 맛있게 익듯이 골목의 풍성한 공기가 사람을 품는다. 골목을 뚫고 내리는 빛, 담장을 넘지 못한 물 알갱이, 집에서 흘러내린 냄새가 골목을 걷는 이의 감각을 자극한다. 몸의 감각이 동시에 반응하는 황홀한 경험이 새롭다. 자동차가 들어가기 힘든 골목에 따르는 사회 경험 불평등과 산책자가 마주하는 황홀한 경험이 공존하는 공간. 좁디좁은 골목길을 바라보는 눈이 방향한다.

오래된 도시를 바꾸는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업에서 골목은 많은 쟁점을 불러온다. 그대로 두어 여전히 자동차를 주인공에서 배제하니 새로 만든 사업을 관통하는 변화 폭이 아쉽다. 도로를 넓혀 차량 통행이 가능하게 하려니 있던 집이 허물어지며 골목이 간직한 고유의 공기가 영구 삭제된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 강릉시 말나눔터 공원 뒤 울곡로와 임영로, 강릉대로로 둘러싸인 교2동 골목에서 생각해본다.

필자는 최근에 집을 구한 경험이 있다. 자차를 이용하는 나에게 주차 환경은 막연한 느낌을 넘어 현실적인 조건이었다. 자동차를 미루고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도보가 간절해진 지금 어쩌다 들어간 골목은 너무도 황홀하다. 그럼에도 지금이 지나면 나는 거기에 없다.

골목을 다루는 시선에 많은 기술이 필요함을 느낀다. 어떤 부분을 집어내어 누구에게 어떤 손짓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골목에 진입하는 차량이 불러오는 사회적 변화와 골목이 쌓은 묵직한 시간, 모두가 중요하다면 선택에서 배제된 상황이 서운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동반되기를 바란다. 

A photograph of a narrow, paved alleyway in a village. The alley is flanked by white walls on both sides. On the left, a wooden roof structure is visible. The ground is dark and paved. In the background, more buildings and trees are visible, slightly out of focus. The overall atmosphere is quiet and traditional.

독일 모젤의 와이너리를 닮은
삼각형 마을

글. 정한호



11월의 어느 일요일 느낌이 일어나 집을 나섰다. 강릉엔 장칼국수 못지않게 유명한 음식으로 교통잡병이 있는데 오늘도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니 아무래도 한발 늦은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 모처럼 햇살도 좋고 해서 조금 걷기로 한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곳이라 자칫 차로 들어왔으면 한바탕 곤욕을 치렀을 것 같다. 늘 지나쳐만 가던 동네인데 주말의 공기와 햇볕이 제법 따스한 느낌을 준다.

큰 골목 사이로 작은 골목들이 연결돼 있다. 사람 두 명이 지나다닐만한 골목에 나란히 붙어있는 집들을 보니, 문득 독일의 주요 와인 생산지인 '모젤(Mosel)' 지역이 떠오른다. 강릉에서 와이너리를 떠올리다니 정말 지독한 직업병이다. 모젤 지역은 1/4 이상이 강을 굽어보는 가파른 경사면에 있는데, 지형적인 특성으로 기계 수확이 불가해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이다. 경사진 비탈길에는 포도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누군가는 그 포도밭을 매일 거닐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비록, 풍경은 다르지만, 연탄보일러 냄새와 빨래 내음이 솔솔 나는 이 골목도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라는 게 묘한 동질감이 느껴진다. 와이너리에 꽃이 가득한 봄철엔 향긋한 포도 내음이 주변 마을로 퍼지는데, 앞으로 바삭 말라가는 빨래 내음을 맡으면 이 동네가 떠오를 것 같다.

한참 골목길을 걷다 어디쯤인가 지도를 보니 한 가지 재미난 모양이 눈에 들어온다. 그건 바로 마을의 지형을 닮은 삼각형. 마을 전체가 큰 대로변에 둘러싸여 삼각형 모양을 자아내는데 주변 지역보다 지대가 낮아서 그런지 어딘가 고립된 듯한 느낌도 있다. 북적이는 대로변의 맛집, 공방, 편집샵과 다르게 숨겨져 있는 듯한 이 마을은 어딘가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다. 오래된 가게들 사이로 종종 신축 건물과 여행자를 반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보인다. 낡은 가게들 사이로 젊은 커플이 캐리어를 들고나오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이 마을의 변화가 그려진다.

사실 모젤 지역도 이제는 조금씩 그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렴한 와인을 생산하는 이미지가 강했다. 독일이 '리슬링(Riesling)' 품종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릴 때 그 그늘에 가려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쳐줬다고나 할까? 그 모습이 마치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맛집들의 화려함 뒤에 숨은 이 마을과 비슷하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져 있던 모젤 지역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 마을의 숨겨진 매력도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될 것 같다. 이 동네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세련된 음식점, 카페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말이다.

우연한 발걸음이 만나게 해준 이 마을의 분위기가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새로움을 접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와인 메이커*들처럼 이곳에도 조만간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다. ☺





* 포도주 양조장에서 와인 제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포도주의 발효, 숙성 그리고 병입까지 책임진 사람





어쨌든 골목

글. 엄은영

교2동의 크고 작은 골목을 걷는 내내 사람들이 나와 복적이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문 앞에 연탄화로와 밥상을 내놓아 양미리를 구워 나눠먹고, 마주본 창문에 얼굴을
빼꼼이 내밀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

여름철엔 빨간 대야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눈이 내리면 포대자루 눈썰매장이 되던 웃음 가득한 골목.

마당보다 더 프라이빗(?) 하고 공터보다 더 재미있던 골목길.

골목이라서 회색 그대로도 괜찮다. 좁을수록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생각한다.

지극히 사적인 골목이야기를 풀어본다.

그리고 흔적과 상상만으로도 따뜻해지는 이 회색의 골목에 알록달록 벽화가 아닌

회색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 채워지길 바라본다.

두 번째 골목 두 번째 집 딸

내가 나고 자란 집은 골목 3개를 사이에 두고 4세대씩 다닥다닥 붙어 있는 사택이었다.

숨바꼭질을 할 때면 제일먼저 골목 사이사이 어느 집 대문에 숨어있을 친구들을 찾느라 시간이 꽤나 걸렸었다.

이후 도시로 나가 대학과제로 내가 살던 골목을 흑백사진으로 찍어 제출한 적이 있다.

좁다란 골목에 낡은 대문이 나란히 있는 내 사진을 두고 도시 친구들은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 라고 말했다.

내겐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했던 골목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런 골목이 뭐가 좋은지 나는 아직도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그 사이사이 묻어 있는 삶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에 남모를 기쁨을 느낀다.

아마도 내가 두 번째 골목, 두 번째 집 딸이기 때문일 것이다.

맥주가 있는 미용실.

혼자 여행하는 것에 빠져있던 20대, 젊은 외국인들로 가득 찬 카오산이 식상해져서

위험한 현지인이 가득하다는 구역으로 '건너면 위험'하다는 다리를 용감하게 건넌 적이 있다.

위험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골목골목을 마구 돌아다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로 한 평 남짓의 동네 구멍가게 앞에 멈추어 섰다.

작은 골목에 쏟아 붓는 빗소리가 너무 좋아 맥주 한 병을 시켜 바로 옆 처마에 앉았다.

처마 주인이 나오더니 나를 쓱 쳐다보고 들어간다. 이대로 쫓겨 나는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 그녀가 빈 컵을 건네준다.

그리고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의자하나가 달랑 놓인 그곳은 미용실이었다.

나는 그렇게 태국의 어느 골목 미용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한참동안 그녀와 소리 없는 수다를 나눴다.

널려있던 수건도 함께 잡고 빗소리도 들으며 그렇게 비가 멈출 때까지 맥주를 훌쩍거렸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맥주였다.



어찌다 골목

루앙프라방을 세 차례나 여행한 내가 아는 국수 맛집은 파란나무 대문 집 앞에 차려지는 난전이다.

현지인도 줄서서 먹는 죽여주는 맛은 물론 날씨 따라 주인장 기분에 따라 언제 문을 열지 모른다는 난전의 묘한 긴장감까지 매력적이다.

하지만 이집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옆 골목에 있다.

일단 맛있는 국수를 받아들면 바로 옆 골목 계단으로 가 줄을 선 듯 쫓로리 앉아서 먹어야한다.

마땅히 먹을 곳이 없는 난전의 특성 때문에 누군가 시작했을 법한 이 '골목 계단에서 국수 먹기'가 인기의 비결이 된 셈이다.

골목 계단에 기대앉아 친구의 등을 마주보고 먹는 국수는 정말 꿀맛이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골목 벽에 장신구가 하나둘씩 걸리더니 작은 굿즈샵까지 차려졌다.

예쁘게 걸어놓은 녀석들 덕에 분위기까지 더해졌고 국수를 먹으며 여유 있게 구경을 한 덕인지 장사도 제법 되는 것 같았다.

멋지게 차려진 가게들 사이에서 매력을 뽐내며 두 가정을 먹여 살리는 골목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



시멘트 틈을 뚫고 골목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받고 자란 너도 꽃



브록 벽돌 구멍에 뭔가 채워줘야할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알지



힘차게 걷는 사람의 발 같은 너, 올해 첫 고드름은 너다

작은 골목, 그 속에서 되돌아 본 나

글. 박연지

강릉에 온지는 어느덧 2년이 되어간다. 서울에서 태어나 쭉-욱 서쪽 끝 수도권에 살아왔던 나에게 아무런 연고가 없던 대한민국 동쪽 끝, 강릉으로 온 것에는 많은 결심들이 필요했다. 서울의 복잡함과 틀에 박혀서 바쁘게 굴러가는 쳇바퀴 같은 하루하루 대신, 좀 더 여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 그 결심을 굳게 지켜준 원동력이다. 하지만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내가 서울에 놓고 오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들고 강릉으로 온 셈이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경제적 타격이 생기며 아침부터 새벽까지 더 많은 일들을 하려고 아등바등 애쓰고 있던 것 같다.

어느 날 골목 하나를 소개 받았다. 분명 내가 아는 곳이었지만 가보지는 않은 그런 곳. 지나가면서만 보고, 겉으로만 보던 별 거 없어 보이는 그 골목. 바쁜 마음에 한 번 후다닥 돌아보았다. ‘뭐야, 생각했던 대로 별거 없잖아.’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고, 포토존이라던가 하는 볼 곳도 없었다. 내가 생각했던 골목이란 느낌은 부산 감천문화마을,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의 그런 예쁜 모습이었다. 그렇게 그 골목은 나한테 잊혀갔다.

그리고 한 달여쯤 시간이 지났을까. 너무 너무 힘든 날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날. 문득 노래를 듣다가 생각난 그 곳.

“ 내가 살던 작은 동네, 뛰어 놀던 작은 집
그땐 참 넓게만 느껴지던 아주 작은 골목길 ... “

적재의 ‘골목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이 노래 가사와 정말 잘 어울리는 그 곳이 생각났다. 뜬금없이 갑자기 골목길?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시끄러운 시내와 큰 길들, 관광지를 벗어나, 혼자만 있는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었다.



♡ Q ▽

처음 나를 맞아준 하얀 벽의 골목길. 창문에서 흘러나온 하얀 녹물이 새하얀 벽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 있었다. 감성에 젖은 감정이입이었겠지만 나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새하얀 도화지처럼 모든 것들을 비우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던 처음의 나와는 다르게, 의도치 않은 녹물이 자꾸 흘러내려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간 건 아닌가. 마음 한 구석이 아려와 서둘러 자리를 뗐다.



♡ Q ▾

골목골목을 다니며 발견한 건, 사람 키보다 조금은 낮은 담벼락에 슬쩍 보면 들여다보이는 집들. 그리고 이런 저런 골목들을 둘러보다 발견한 어느 한 집의 철조망. 유난히 사람 키보다 높은 담벼락에, 그 위로 삐죽삐죽하게 솟은 쇠 철조망까지. 이 역시 나와 같은 모습이지는 않을까 싶었다. 실 뭉치 마냥 둥글둥글, 따듯하게 지내고 싶었던 나는 알고 보니 가시를 가득 세운 채 웅크린 동그란 고슴도치는 아니었는지. 괜스레 자책을 하며 다음 골목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없이 우울감에 빠져들고 있을 때 찜, 큰 골목으로 나가 아기와 아빠를 만났다. 2살 된 아기는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는 작은 손을 흔들어주었다. 마음이 사르르 녹는 걸 느꼈다.



근처에 산다던 아기는 작은 쌍쌍카를 끌고 이 골목저 골목 누비며 행복해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허락을 구하고 사진을 찍었다.



그 때부터였을까, 작은 것 하나하나 소중해보이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 시멘트 담벼락 사이 비집고 나온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대문 앞, 이름 모를 어느 어르신의 휴식처도.





답답한 골목. 거미줄 같은 전깃줄 아래 있지만, 그 위에 파란 하늘이 있음에.
벽과 바닥 사이에 있는 이유모를 손바닥만한 창문까지도 귀엽게 느껴졌다.





♡ ◯ ▽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난 어느 집의 열매들, 추운 겨울에도 짙한 색을 뽐내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에 괜히 흐뭇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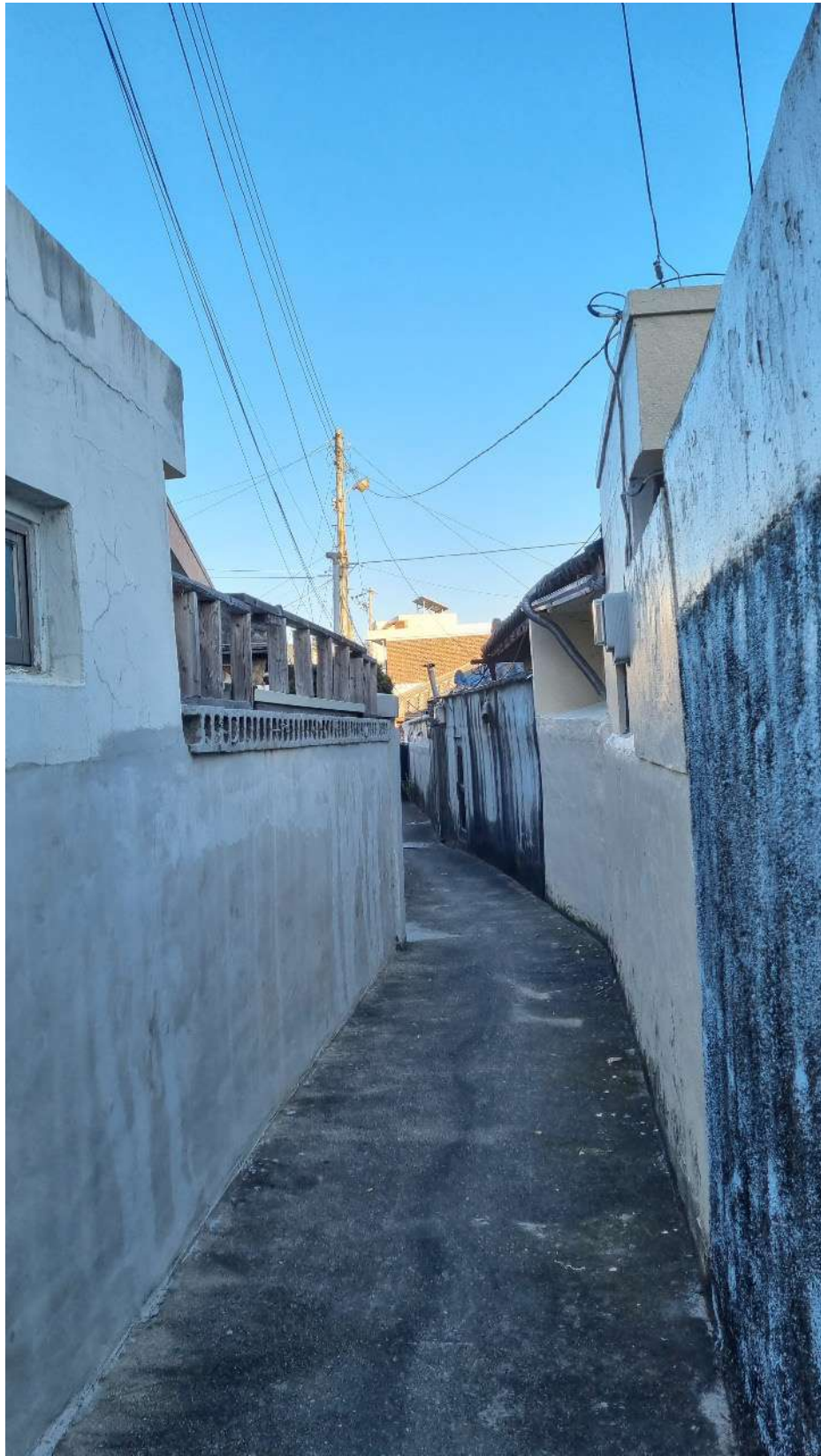
한 시간 정도 혼자 걸으며, 아무런 뜻도 모른 채로 나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지나왔던 길들. 결국 작은 것 하나에 사르륵 녹게 될 마음이었었는데 무얼 그리 걱정하고 힘들어하며 왔던 걸까.

“ ...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가끔 내 삶이 버거울 때면
생각나는 그 골목길 , 그 골목길 “

아마 다음번에도 내가 힘든 그 날이 온다면, 그 골목길에 다시 방문하지 않을까싶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곳의 모습과, 그 사이 변한 그 곳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강릉시 수문길13번길 19 (옥천동 106-1) 1층 <http://www.gursc.org> T.033-642-3995 F.033-643-3996
Copyright ©강릉시도시재생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